

문제 1

1.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개인 간에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듯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인 연관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어진 제시문은 개인의 행위가 사회에 얼마나 변화를 주었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사실 큰 의미없는 문장 서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순서대로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발문 그대로 서술이잖아요? 문장 늘리기라는 기능 빼고는 의미 없는 서술이예요.

2. “이처럼 개인의 욕구가 사회규범으로까지 확장되어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용상으로 맞지만 표현이 다소 애매합니다. 개인의 욕구가 확장된 것이라기 보다 사회의 모든 개인의 욕구를 합리적 관망자적 관점으로 ‘조정’하니 사회는 개인에 의해 조정되므로 영향력이 크다고 바꿀게요.

3. “(라) 주장하는 바는 선한 개인은 선한사회를 형성하며 개인의 도덕성이 결여되어있을 때는 사회도 시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명목론의 입장에서 사회는 개인의 총합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특성이 사회전체의 특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여기도 문제인데, 일단 제시문의 내용과 불일치예요. 개인이 부도덕해도 선한 개인들이 사회를 만들면 유대의 강화를 통해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답안을 서술해보시면 사회명목론에 따라 개인의 영향력이 없는데 어떻게 (다)와 (나)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고 서술할 수 있을까요. 논리성으로도 제시문의 내용상과도 불일치입니다.

이 뒤의 내용들은 첨삭이 사실상 불필요해요, 2번 지적 내용까지는 큰 의미없이 서술적 오류로 인정하더라도 3번 지적이 좀 커서 사실상 (라)가 왜 남은 두 제시문보다 영향력이 큰지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시문에 대한 요약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을 설명하고 왜 각각 제시문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 ‘논리적 근거 서술’을 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심하세요.

문제 2

1. “또한 같은 관점에서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주변 환경을 인지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주변 환경 속에서 공동체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타인의 이익을 고려한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적절한 역할 행동과 의무를 이행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통해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나)를 개인적 관점으로 보셨는데 아까 문제 1에 선 (나)가 순서가 꼴지 아니었나요? 즉 사회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답안 서술한뒤 다른 문제를 풀 땐 아니다? 논리적으로 오류죠.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이 제시문은 개인의 영향력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2. 나머지는 오류가 없네요 수고했어요 :)